



케이 소피 라템마이어 파올로 바라타 데이빗 엘리엇 마크 나쉬 리 수안 히앙

세계 미술 거장들 대거 광주에 온다

‘애포 넘버 원’ 광주비엔날레 위상 반영

07 연례보고
08

<D-7>

올 가을 세계 미술계의 눈이 광주로 쏠린다. 오는 9월 5일 개막하는 제7회 광주비엔날레(9월 5~11월 9일)에 파올로 바라타(Paolo Baratta) 베니스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등 내로라 하는 세계 미술계의 거장들이 대거 참석하기 때문이다. 또한 뉴욕 타임스, 아트 인 아메리카(Art in America) 등 해외 유수 언론들도 프레스 오픈과 개막식 취재를 위해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이며 2008 광주비엔날레는 명실상부한 ‘별들의 잔치’가 될 전망이다. 28일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올해 개막식에는 파올로 바라타 베니스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주 짜양(Xu Jiang) 상하이비엔날레 상임위원장, 리 수안 히앙(Lee Suan Hian) 싱가포르비엔날레 관장(싱가포르

국가예술위원회 의장), 데이빗 엘리엇(David Eliot) 일본 모리미술관 관장(전 국제현대 미술박물관 위원회 상임위원장), 크리스찬 라템마이어(Christian Rattemeyer) 뉴욕현대미술관(MoMA) 큐레이터, 케이 소피(Cay Sophie)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 감독, 마크 나쉬(Mark Nash) 영국 왕립미술학교 교수 등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미술계 인사 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 가운데 파올로 바라타 이사장은 메이저 비엔날레 수장답게 국제 미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물 중 거물’로 대부분의 비엔날레가 개막식에 초청하고 싶어하는 ‘영입대상 1순위’이다. 부부사이인 크리스찬 라템마이어와 케이 소피는 유럽과 미국을 누비며 명품 미술이벤트를 기획하는 ‘세계 톱 큐레이터’들이며, 데이빗 엘리엇은 세계 유수의 박물관·미술관장의 모임인 국제현대 미술박물관 위원회 상임위원

장을 역임한 국제 미술계의 ‘파워 맨’이다. 특히 올해 광주비엔날레에는 뉴욕타임스(미국), 산케이신문(일본), 르 몽드(프랑스), 인민일보(중국), 저먼TV(독일), 러시아 NTV 등 외국의 주요 언론과 플래쉬아트(Flash Art), 마우스매거진(Mousse Magazine), 아트인 아메리카(Art in America), 아트인 오스트레일리아(Art in Australia) 등 세계 유명 미술전문잡지도 프레스 오픈과 개막식 취재를 위해 광주를 찾는다. 재단은 이번 광주비엔날레에 외국의 미술계 인사와 언론인 등 약 100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제6회 대회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수치다. 이처럼 올해 광주를 찾는 외국의 미술 관계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시아 넘버 1’으로 자리잡은 광주비엔날레의 위상과 함께 오쿠이 엔위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대한 지명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말 뿐인 규제 개혁

광주·전남 건의 60% “수용 불가”

투자환경 개선 안돼

정부가 투자 활성화와 경제 살리기 위해 규제 개선을 선언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지방의 각종 규제 완화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규제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8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4월 정부의 지침에 따라 13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 건의했으나 지난 25일 현재 중앙부처의 검토가 끝난 39건 가운데 수용 8건(21%), 일부 수용 7건(17%) 등 규제 개선은 겨우 38%에 그쳤다. 반면 수용 불가는 19건(48%)이었으며, 중장기 검토는 5건(13%)으로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이 61%에 달했다. 나머지 91건은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다. 전남도도 규제개선 과제 185건을 발굴, 건의했으나 현재 검토 중인 건의 42건을 제외한 143건 가운데 수용 37건(25%), 일부 수용 22건(15%)으로 긍정적인 조치가 40%에 불과했다. 수용 불가는 60건으로 41%, 중장기 검토는 24건, 16%로 부정적인 답변이 무려 57%나 됐다. 광주·전남도가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0건 가운데 6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남도와 광주시가 열악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핵심 규제 개선 사항 59건(광주 39건·전남 20건) 중 절반이 넘는 30건(광주19건·전남 11건)이 수용 불가 판정을 받아 규제 개혁 취지를 무색케 했다. 실제 광주시가 건의한 영산강 동북호 물이용 부담금 경감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 주요 현안이 수용되지 않았다. 전남도 역시 대불산내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요구, 투자 유치를 위한 농지보전 부담금 50% 감면 등 핵심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업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들이 풀리지 않는 등 정부의 규제 개혁이 허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추석 한과 빚기

민중 대명절인 추석을 보며 앞둔 28일 담양군 창평면의 한 한과 공장에서 명절 대목에 맞춰 한과를 빚는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무늬만 中企’ 2천여개 졸업시킨다

경쟁력 확보 위해 첨단 중소기업 집중 지원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9면>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2천여개 기업이 중소기업 그룹에서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는 창업 중소기업, 신소재·신기술 등 첨단 중소기업 등에 집중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개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또 모든 신설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일몰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도 1·4분기 중에 분야별 전문가 심의위를 구성, 적용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규제일몰제는 규제가 존속 기한을 설정,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토록 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는 매출 채권, 지적재산권과 같은 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채권담보제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제57기 수습기자
최종합격자 명단
김형호 전세환
光州日報社

2010 대입 ‘3不 정책’ 유지

대교협, 기본사항 확정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0학년도 대입에서도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대입 ‘3불(不) 정책’이 유지될 것

으로 전망된다. 2010학년도 수능 시험은 2009년 11월12일(목) 실시되며 대학별 세부 전형계획은 올해 11월 말 발표된다. <관련기사 7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대입 자율화의 안정적 추진을 돕고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학년도 전형에서 급격한 변화는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연습스

연례보고 Annual Report

2008 광주비엔날레

터질듯한 상상력의 현대미술축제... 7번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외제미술관, 대인시장, 광주극장 2008.9.5-11.9

■ 전시내용

- 1. 2008 광주비엔날레
- 2. 2008 광주시립미술관
- 3. 2008 외제미술관
- 4. 2008 대인시장
- 5. 2008 광주극장

■ 프로그램

- 1. 2008 광주비엔날레
- 2. 2008 광주시립미술관
- 3. 2008 외제미술관
- 4. 2008 대인시장
- 5. 2008 광주극장